

<2022년 7월 8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은 사망으로 간다. 그 육신 역시 사망권의 삶을 살게 된다.
2. 회개는 돌이키는 일이다.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니, 죄를 회개하여 없애면 생명권으로 돌아오게 된다.
3.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망으로 갔다는 말이다. 다시 회개하여 생명권으로 나와야 육도 영도 살아난다.
4. 깨끗하게 회개하면 죄를 청산하게 되니, 그렇게도 좋다.
5. 죄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고로 회개하여 없애야 된다.
6. 하나님을 상징하는 야심작에 있던 코끼리 조각상은 필요 없어서 없애고, 독수리 조각상을 가져다 놓았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성령폭포에도 필요 없는 곰 조각상, 말 조각상을 모두 없앴다. 이와 같이 저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자르고 없애야 된다.
7. 죄는 배설물과 같아서 때가 되면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처음에 절대 필요해서 사 와서 먹던 음식도 영양가를 흡수하고 나면 배설하여 버려야 된다.
8. 죄는 생활 쓰레기와 같다. 버릴 때는 회개하여 버려야 된다.